



면세업계
경험으로
관광객 잡는다
L1



Life

바로팜
코스닥 상장
승부수
L2



30년 농정 내공에 AI 혁신 더해... K-축산 미래 이끈다

CEO 와칭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데이터가 정책의 '지도'라면 그 정책을 완성하는 것은 '현장'이다. 기술에서 출발한 공공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닿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임직원 앞에서 밝힌 경영 철학이다. 축평원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지능화 기관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산 유통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제13대 박 원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관,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농정 전반에 굵직한 뼈대를 세운 정통 기획통이다. 공직에서 검증받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축평원의 체질을 AI 기반의 미래형 조직으로 바꿔 가고 있다.

◆데이터와 현장 잇는 30년 농정 전문가

행시 제40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정책 기획과 예산, 스마트농업 확산, 국제통상 등 농정 전반의 거시적 안목과 정밀한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로 꼽힌다.

박 원장의 공직 행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데이터와 현장의 선순환'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담당 국장으로 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검증 시스템을 전면 구축해 정책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스템은 이후 농식품부 주요 사업 관리체계의 표준 모델이 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바 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철학은 현재 축평원 운영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중이다. 박 원장은 축평원이 보유한 축산물 품질·이력·유통 데이터를 민간과 정책 현장에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농가에 실익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는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품질평가 데이터 활용—축산물 신뢰 극대화

그의 취임 후 축평원 내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축산물 품질평가 AI 전환과 데이터 활용'이다. 기존 축산물 등급 판정은 인력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과 고화질 영상 분석을 결합한 등급판정 시스템 및 장비를 구축했다. 신뢰도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

실제로 소 AI 평가 장비를 전국에 배치했다. 이로써 전체 품질평가 물량 중 AI 판정 비율을 2025년 9%에서 2026년 41%(51개소·150대)로 대폭 늘렸다.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과 양돈기업 도축장 15개소에서 전체 물량의 35%를 AI로 평가하고 있다. 계란도 연말까지 AI 판정 장비를 집하장(GP센터) 11개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AI 기반 품질평가는 업무 효율화는 물론, 농가 경영 전략을 바꾸고 맞춤형 유통을 선도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고 있다. 축평원은 축적된 AI 품질 데이터(근내지방비율, 등심 사진, 삼겹살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지난 7월24일 (좌)삼세를 찾아 여름철 폭염·폭우 대응 체계 및 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살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30년 농정경험 바탕 韓 축산 혁신 주도 데이터 기반 '농업 디지털 전환' 이끌어

AI 축산물 품질평가 도입... 업무효율↑ 이력관리·유통체계도 디지털화로 관리 도축장-경매장 원격 경매 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축산 설계... 가치소비 확산 현장 누비며 농가·소비자 중심 정책 펼쳐

지방비율 등)를 농가에 제공해 사육과 출하시기 판단을 돕고 있다. 소 등심 사진과 연계한 도매 거래를 지원하고 삼겹살 지방 비율에 따른 구분 유통까지 뒷받침한다. 'AI판정전환팀' 신설과 통합 관제시스템 도입 등 빠른 조직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축산유통 디지털 혁신 박차

축산물 이력관리와 유통 정보제공 체계도 디지털 기술을 입고 진화하고 있다. AI 영상 및 이미지를 활용해 농가가 더욱 편리하게 이력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데이터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 사례를 선별·점검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사육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 의심농가를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는 등 이력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박 원장은 다년간의 국제통상 협상과 주이탈

리아대사관 농무관 근무 경험을 갖춘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 감각을 바탕으로 축산물 유통 구조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한 축산 유통 체계 디지털 전환에 힘쓰고 있다. 도축장과 경매장 간 실패 이동 없는 원격지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9월부터 실제 경매를 추진 중이다. 가축 출하 시 필요한 최대 11종의 서류를 자동 수집·제출하는 '전자출하 시스템'을 확대했다. 또 자체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보유한 도축장 전체(23개소)에 전면 적용해, 농가와 도축장의 행정처리 시간을 47% 단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정확한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공표로 합리적인 소비와 정부의 수급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축평원은 축산물 가격과 재고, 유통 구조 등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 제공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높이고 이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문제해결형 스마트축산 확산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시절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 체계와 저탄소 녹색축산 전략을 설계했다. 그의 전문성은 축평원의 정책 지원 사업에서 한층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축산업 현안 해결 중심으로 기관의 스마트축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솔루션 패키지 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또 사육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넘게 낮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를 851호(한우·돼지·젓소)까지 늘렸다. 인증 돼지고기의 군·학교·기업 급식 공급과 백화점·마트 유통망 확대를 이끌어 가치소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 원장은 올해 7월 'AX(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AX로 드맵'을 선포했다. 기관 경영 전반에 AI를 이식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행보다. 기관 내부적으로 AI 등 신기술 도입에 맞춘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했다. 또 기관 최우선 핵심 가치인 '안전' 경영 체계를 세우고, 내실 있는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국현장 누비는 '발품 행정'

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 밀착형 소통'과 '정책 고객 중심의 업무 전환'을 주문하고 솔선수범에 나섰다. 세종 본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10개 지원을 비롯해 전국 도축장, 축산 농가 등 현장을 매일 수시로 찾으며 발품 행정을 펼쳐 왔다.

임직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당부한 대목이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제도의 기획은 생산자인 농가, 유통 현장의 관계자, 그리고 최종소비자인 국민 등 '정책 고객'의 눈높이와 수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 편의적인 단속이나 단순 수급 중심의 업무 방식을 버리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론이다.

축평원은 축산유통 밸류체인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독보적인 축산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30년 농정 경험에서 나온 정교한 데이터 행정과 현장 중심의 끊임없는 소통은 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의 리더십 하에, 축평원이 바뀌어 나갈 축산 유통 생태계와 새로 그리는 K-축산의 미래에 세간의 기대가 모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NC, 두산 방출 손아섭에 입단 제안...
답변 기다릴 것
▲밀워키 브루어스, 월드 시리즈 3차전서 대승...
창단 첫 우승까지 '1승'
/사진 뉴시스

▲사우디, 정세 불안에도 '아시안컵 강행' 예고...
AFC 일정 발표
▲모레노, 오는 29일 A매치 명단 발표...23명 안
팍 축소 전망

▲민헌 김민재, 부상 회복해 개인훈련 복귀...11월
평가전 출전 기대도
▲오늘 서울 제외 전국 한파주의보...전국 곳곳서
출근길 '영하권'